

부산일보

www.busanilbo.com

1 판

제 19400 호

2007년 2월 26일 월요일 (음력 1월 9일)

“부산 현안, 국가정책으로”

허시장, 10대과제 발표 정치권 상대 해결 촉구

“부산의 현안 사업이 국가적 어젠다로 채택되어야 합니다.”

허남식 부산시장이 올해 대통령선거를 겨냥, 중앙정부와 정치권을 상대로 부산의 정책과제 해결에 적극 뛰어들겠다고 선언했다.

허 시장은 26일 오전 부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선진 부산을 위한 10대 정책과제’를 발표하는 한편 이 과제들이 국가정책에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허 시장이 제시한 정책은 강서 첨단산업물류단지 조성, 동남권 국제허브공항 건설, 하계

올림픽 유치 등으로 국가적인 지원에 의해서만 가능한 것들이다.

허 시장은 10대 과제를 △물류비즈니스 산업 확충 △지식기반산업 투자 △국가적 브랜드 높이기 등 3가지 분야로 나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과제들이 국가정책으로 채택돼 부산 권역을 집중 육성해야만 우리나라가 동북아의 경제 중심지로 성장할 수 있다는 논리를 내세웠다.

먼저 물류비즈니스 산업 확충을 위해 △강서 첨단산업 물류도시 조성 △동남권 국제허브공항 건설 △동북

아 허브항만 집중 육성 △대부산권 광역교통망 구축 △북항재개발 △부산해양특별시 육성 등을 들었다. 국가적 산업인 지식기반산업 육성을 위해 △아시아 영상문화 중심도시 육성 △부산 U-시티 선도도시 지정·건설 △관광·컨벤션 클러스터 조성 등이 필요하고 부산의 국제적 브랜드를 높이기 위해 △부산 하계올림픽 유치에 중앙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부산의 장기전 발전전략으로 △한·일 해저터널의 건설 필요성에 대해서도 진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허 시장은 이와 관련, “지역 전문가와 정치권 경제계 시민사회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 구체적인 실현전략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이날 허 시장의 기자회견은 대통령 선거 및 차기정권 구성 과정에서 부산시장으로서의 정치적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허 시장은 “10대 정책과제는 치열한 국제 경쟁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반드시 실현되어야 할 생존전략”이라면서 “중앙정부와 적극적인 협의를 하고 나아가 차기 정부와 정치권에서도 국가정책으로 채택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상민기자 yeyun@

釜山日報 2007 年 2 月 26 日

「釜山の懸案、国家政策に」

ホ市長、10大課題発表 政界相手に解決促す

「釜山の懸案事業が国家的な議題として採択されなければならない」

ホ・ナムシク釜山市長が今年、大統領選挙に照準を合わせ、中央政府と政界を相手に、釜山の政策課題解決のため積極的に身を投じることを宣言した。

ホ市長は26日午前、釜山市庁で記者会見を開き「先進釜山のための10大政策課題」を発表する一方、この課題が国家政策に反映されるようにすることを強調した。ホ市長が提示した政策は、江西一先端産業物流団地造成。東南圏一国際ハブ空港建設。夏季オリンピック誘致など国家的な支援によってのみ可能なものである。

ホ市長は10大課題を△物流ビジネス産業拡充△知識基盤産業の投資△国家的ブランド力の向上など3つの分野に分けて推進すること明らかにした。この課題が国家政策に採択され、釜山広域を集中的に育成すれば、我が国が東北アジアの経済中心地として成長できるという論理を掲げた。

まず物流ビジネス産業拡充のために△江西一先端産業物流都市造成△東南圏一国際ハブ空港建設△東北アジアのハブ港湾の集中育成△大釜山圏広域交通網の構築△北港再開発△釜山海洋特別市の育成などを挙げた。国家的産業である知識基盤産業育成のために△アジア映像文化センター都市指定・建設△観光・コンベンションクラスター造成が必要で、釜山の国際的ブランド力を上げるために△釜山夏季オリンピック誘致に中央政府が乗り出さなければならないと主張した。それ以外にも、釜山の長期戦の発展戦略として△日韓海底トンネルの建設の必要性についても真剣な検討が必要であると明らかにした。

ホ市長はこれに関連して「地域の専門家と政界、経済界、市民社会などから多様な意見を集約し、具体的な実現戦略を発表する」と語った。この日、ホ市長の記者会見は、大統領選挙および次期政権の構成過程で釜山市長としての政治的力量を最大限に発揮するという趣旨を説明した。

これに対し、ホ市長は「10大政策課題は熾烈な国際競争に能動的に対処するために必ず実現されなければならない生存戦略」とし、「中央政府と積極的な協議を行い、次期政府や政界でも国家政策として採択するよう最善を尽くす」と明らかにした。